

# 부산경남지원 그린봉사단 동광육아원 봉사활동을 되돌아 보며...

- 부산경남지원 김동준 과장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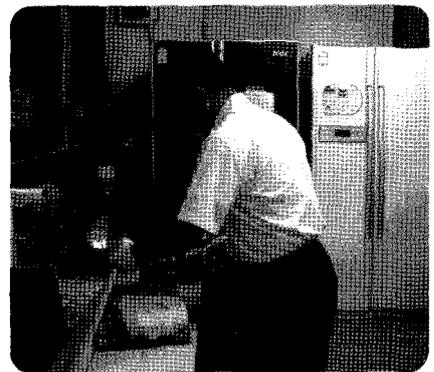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 '그린 봉사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복지단체인 동광육아원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 받는 다양한 계층이 있지만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가 될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동광육아원을 부산경남지원 자매결연 복지단체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인연은 2년 동안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광육아원은 김해시 대동면의 공기 좋고 한적한 곳에 위치한 곳으로 1953년 전쟁고아를 25명 수용하면서 아동보육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래된 역사만큼 아동복지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복지사업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하고 있으며 현재 육아원 내 보호아동으로는 초등학생 6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1명, 대학생 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요활동...** 부산경남지원 그린봉사단이 2년간 육아원에서 한 활동으로는 대형 냉장고 옮기기, 젓소우리 보수, 육아원 텃밭 정리, 육아원 내부청소, 운동장 잡초 제거, 물품전달(등급란, 과자)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봉사활동 시 빠지지 않고 매번 하는 일은 준비한 돼지고기를 먹기 좋게 세절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고기는 육가공장에 가서 바육이 잘되고 마블링이 잘 들어간 1등급 이상 돼지고기를 직접 골랐습니다.

처음에는 고기 다듬는 기술이 부족하고 요리에 대한 지식도 없다보니 고기를 깎독썰기 해야 할지, 얇게 펴서 썰어야 하는지 어떻게 자를지 몰라 헤맸습니다. 등급판정기술이랑 고기 다듬는 기술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영양사님(주방 이모님)이 부탁하는 그날 또는 그 주에 할 요리에 맞게 저계용, 볶음용으로 다듬어 비닐 팩에 종류별로 이쁘게 포장해서 냉장고에





정리해 놓으면 “어떻게 남자 분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잘하나” “품질평가원 직원 분들은 정말 가정적이다.”라며 칭찬과 감탄을 감추시 못하십니다. 물론 2박3나 되는 고기를 한 번에 다 썰다보면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지만 우리가 등급판정한 우리축산분을 아이들이 먹고 튼튼하게 자란다는 생각과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고기를 많이 해줄 수 있어 어깨 아픈 것 자체도 큰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느낀점...** 바쁜 일상과 반복되는 생활에서 한번 쯤 하는 동광육아원 봉사활동이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훈훈하게 하는지 그린봉사단 일원들 모두 느끼고 감사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봉사활동을 하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와 삭막한 일상 속에서 메마를 수 있는 감성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과 반복되는 생활에서 한 번씩 하는 동광육아원 봉사활동이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훈훈하게 하는지 그린봉사단 일원들 모두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봉사활동을 하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와 삭막한 일상 속에서 메마를 수 있는 감성이 치유 되고 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어른인 우리들이 오히려 더 배울 것이 많으며 우리사회가 정이 있고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동광육아원 봉사활동을 통해 느꼈습니다. 부산경남 그린봉사단은 추운 겨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커가는 위상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이미지에 걸맞게 부산경남 그린봉사단 역시 지역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장려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2차개결연 복지단체 섭외, 직원 헌혈 및 헌혈 캠페인, 농촌 봉사활동 등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서로 남이라 느끼지 않고 우리라고 생각하듯 우리라는 사고 안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몸으로 뛰는 부산경남 그린봉사단이 되겠습니다. ■

*부산경남 그린봉사단 아자! 아자! 아자! ~~~*

# 충북지원 그린봉사단 2010년 한 해를 되돌아 보며...

- 충북지원 송인성 과장대리

충북지원 그린봉사단은 올 한해 지난해와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행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월 1회 주말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던 것을 평일 오후 월 2회로 늘려 주말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또한 충북 북부지역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이 번거리를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충주에 위치한 지현카리타스 노인복지센터와 인연을 맺어 사회공헌활동에 유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참여가 지조했던 직원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며 장거리 이동이 줄어들어 직원들의 호응이 좋아졌습니다. 총 11번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는 동안 95명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린봉사단은 2005년부터 현양원재단 소속의 청주 노인전문요양원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청주노인전문요양원은 1919년 청주·청원지역의 유지들이 행려환자의 수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박인회'를 시초로 하여 1964년 청주시의 조례에 의해 운영해 오다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폐쇄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현양원재단

(박성택 이사장)에서 매입하여 현재는 40여명의 직원들과 60여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이곳은 도심을 가로질러 청주 시민들의 상쾌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고 있는 상당산성을 지나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도로변에서도 차량으로 5분 정도를 더 들어가야만 도착하는 이곳은 아이들과 어르신들, 선생님들께서 머무시는 생활관을 제외하고는 도시의 풍경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다양한 활동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 구계역의 여파로 대외활동을 자제했던 우리는 4월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4월이던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데 봉사활동을 하러간 그날은 유난히도 쌀쌀했습니다. 지난 겨울동안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았는지 생활관 안팎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직원들은 땀뿡이 흘려져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였





습니다. 사원봉사자들이 어려워 한다는 식당청소를 시작으로 화장실 및 회복실 청소, 이르신 목욕시켜드리기, 건물주변 화단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주간에는 이곳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세란에 갖가지 그림과 포장을 하면서 답소도 나누었습니다.

여름이면 수분을 가득 머금은 화단의 잡초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업무를 마치고 봉사활동을 하러 가던 한 여름의 뜨거운 햇볕은 가을 어가고 있는 오후지만 30℃가 넘는 무더위에 직원들은 온몸에 땀을 흘려가며 우리집 화단 돌보듯 열심히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 화단의 경사가 급하여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직원들은 불평 한 마디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지난 10월 9일에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현양원 복지재단 소속의 기관들이 모두 모이는 체육대회에 초대된 겁니다. 우리 직원들은 체육대회 진행 도우미가 되어 거동이 불편하신 이르신들의 행사장까지의 이동을 돕고 열띤 응원도 펼쳤습니다.

체육대회에서는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은 체육대회 중간에 운동장에 모여 치매예방 체조를 선보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함께 했습니다. 가을 하늘의 푸른 햇살 아래 체조를 하며 흥겨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봉사활동을 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석한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우리를 담당하시는 복지사 선생님께 전해드리러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벽면 한쪽에 걸려있는 월간 일정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메모들 중에서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다급 아닌 어르신들의 사망 메모였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러 오는 곳이 어르신들의 생애 마지막 보급자리였던 겁니다.

그 날 이후 필자는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마음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할 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필자는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마음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할 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